

고대 중국의 개념에 관한 유교사상사적 고찰

A study of Yi() in Ancient China from the history of Confucianism

| | |
|--------------------|---|
| 저자 (Authors) | 원용준 Won, Yong-Joon |
| 출처 (Source) | 양명학 (43), 2016.4, 83-108(26 pages) YANG-MING STUDIES (43) , 2016.4, 83-108(26 pages) |
| 발행처 (Publisher) | 한국양명학회 The Korean Society Of Yang-Ming Studies |
| URL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82218 |
| APA Style | 원용준 (2016). 고대 중국의 개념에 관한 유교사상사적 고찰. 양명학(43), 83-108 |
| 이용정보 (Accessed) | 건국대학교 202.30.38.*** 2019/11/23 11:08 (KST)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고대 중국의 ‘夷’ 개념에 관한 유교사상사적 고찰

원 용 준*

【주제분류】 동양철학, 중국철학

【주 제 어】 이, 동이, 중화, 화하, 화이론, 유가, 공양진, 염철론

【요 약 문】

‘夏’ 혹은 ‘中華’와 ‘夷’ 혹은 ‘東夷’에 대한 사유는 문화적, 윤리적 사유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사상사적 고찰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고대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화를 높이고 이적을 멸시한다(尊夏卑夷)’는 사고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논문은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夷’와 ‘華夷論’이 지니는 다양한 의미를 사상사, 특히 유가 사상의 역사 속에서 고찰한 것이다. ‘중화를 높이고 이적을 멸시한다(尊夏卑夷)’는 사유가 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가사상에서 비롯하였다는 등 기존 연구가 ‘아’와 유가사상의 관계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사상을 중심으로 ‘아’의 개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공자는 이민족이 예의를 갖추면 그들의 열등함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며 동이를 교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맹자는 이적의 야만인이라도 본성은 선하며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인이

* 성균관대학교 / 강사 / museo88@hanmail.net

될 수도 있다고 하여 순과 문왕을 그 대표적인 인물로 존송한다. 순자는 중국과 이적의 차이란 교육, 교화의 기회가 많고 적음에 따른 것으로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고대의 유가들은 중화와 이적을 정치적으로 구별하여 이적을 배척하지 않았다.

전한시기의 공양전은 수용의 논리와 권계주의를 통해 이적도 중국이 될 수 있음을 설파하였다. 그렇지만 이때부터 이적을 바라볼 때 정치적인 시각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에는 한과 흉노와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후한시기가 되면 『염철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더 이상 교화의 대상이나 문화 상대주의적 시각으로 보지 않고 완전히 분리하여 중국에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유가사상이 동이를 비하하고 화하를 높인 것이 아니었으며, 이 같은 사유는 한대 이후의 역사적 정치적 이유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I. 서론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夷’라는 말은 중국이 아닌 주변의 이민족을 가리키는 말, 주로 중국 동쪽 지역의 이민족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¹⁾ 때로는 동쪽 지역의 이민족뿐만 아니라 이민족 일반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하였다. 또한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중국, 중화 혹은 화하(華夏)가 주변의 이민족보다 도덕적, 문화적으로 탁월하다는 의식이 존재하였다. 그 일례로 『전국책』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중국은 충명과 예지가 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고, 모든 재용이 모인 곳이며, 현인과 성인에게 교화된 곳이고 인의가 베풀어지는 곳이며, 시서예악(詩書禮樂)의 학문이 사용되는 곳이고 독특하고 정교한 전문기술이 쓰이는 곳이며, 먼 지방에서 와서 보고 본보기로 삼는 곳이고 만이(蠻夷)의 이민족들이 의리가 행해진다고 여기는 곳이다.²⁾

그리고 사방의 이민족이 중국, 중화에 비해 열등하다는 생각 또한 존재하였다.

동쪽 이민족을夷라고 한다. 산발하고 문신하며 음식을 익혀먹지 않는 자도 있다. 남쪽 이민족을蠻이라고 한다. 이마에 문신하고 양 발을 모아 교차하면 서 걷고 음식을 익혀먹지 않는 자도 있다. 서쪽 이민족을戠이라고 한다. 산발

1)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中國’은 현대의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을 의미하지 않는다. 『맹자』 등 고대 문헌에서는 ‘中國’을 천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던 중원국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속에는 단순히 지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즉, 中華, 華夏라는 개념과 상통하는 개념이다. 한편 이 논문에서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칭할 경우 현대중국이라는 말로 대신하겠다.

2) 『전국책』 「趙策 二」: 中國者, 聰明叡知之所居也, 萬物財用之所聚也, 賢聖之所教也, 仁義之所施也, 詩書禮樂之所用也, 異敏技芸之所試也, 遠方之所觀赴也, 蠻夷之所義行也.

한 채로 짐승 가죽을 몸에 두르며 곡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다. 북쪽 이민족을狄이라고 한다. 새의 깃털과 짐승 털옷을 입고 동굴에 살며, 곡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다.³⁾

이 같은 고대의 중화사상 혹은 화이론에는 중국, 중화, 화하로서의 우월감과 동이를 비롯한 사방의 이민족에 대한 멸시가 존재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 ‘夷’는 주변부의 이민족 혹은 야만족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중화문화를 창조한 중심 민족으로 격상되고 있다. ‘夷가 중화문화 창조의 핵심이라는 논의의 시작은 푸스넨(傅斯年)의 『이하동서설(夷夏東西說)』부터로,⁴⁾ 여기에는 대문구문화(大文口文化)와 용산문화(龍山文化)의 발견과 같은 고고학적 성과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이하동서설』 이후 역사학, 고고학을 중심으로 ‘夷’ 혹은 ‘東夷’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성과들을 산출해 왔는데, 많은 연구들이 중국문명 형성에 ‘동아’를 중요요소로 꼽고 있다. 즉, 중화민족에는 화하족뿐만 아니라 동이, 묘만(苗蠻)과 같은 집단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화다원론적 시각이 대세가 되고 있으며, 나아가 ‘동이’가 곧 화하족이라는 연구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연구 중에는 현대중국 문명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에만 치중하여 모든 문화요소를 화하문화, 중화문화로 귀속시켜버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것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그 중에는 기존의 중화사상 혹은 화이론이 지니고 있던 ‘중화를 높이고 이적을 멸시한다(尊夏卑夷)’는 사고는 잘못된 것인데, 이 잘못된 사고는 바로 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가사상에서 비롯하였다는 연구도 있다.⁵⁾

3) 『예기』 「王制」: 東方曰夷, 被髮文身, 有不火食者矣. 南方曰蠻, 雕題交趾, 有不火食者矣. 西方曰戎, 被髮衣皮, 有不粒食者矣. 北方曰狄, 衣羽毛穴居, 有不粒食者矣. 中國夷蠻戎狄, 皆有安居和味宜服利用備器.

4) 『夷夏東西說』은 1933년에 최초로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정재서 역주의 『이하동서설』(우리역사연구재단, 2011년)을 참고하였다.

‘夏’ 혹은 ‘中華’와 ‘夷’ 혹은 ‘東夷’에 대한 사유는 문화적, 윤리적 사유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사상사적 고찰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고대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화를 높이고 이적을 멸시한다(尊夏卑夷)’는 사고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논문은 이 같은 문제의식 위에서 ‘夷’와 ‘華夷論’이 지니는 다양한 의미를 사상사, 특히 유가 사상의 역사 속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중국에서 간행되는 ‘아’, ‘둥아’ 관련 논문들의 문제점을 확실히 밝히고 공자에서 한대(漢代)에 이르는 시기의 유가의 ‘夷’에 대한 사유를 분석하여, 사상사 속에서 유가 화이론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夷’를 둘러싼 논의의 의미가 스스로 명확해질 것이다.

II. ‘夷’에 대한 현대중국의 연구 경향

중국 최고(最古)의 사전 『설문해자』는 ‘夷’를 “평평하다는 뜻이다. 大와 弓을 구성요소로 하는 글자다. 동쪽 지역의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한다.⁶⁾ 또 『예기』 「왕제(王制)」에 “동쪽 지역의 이민족을 ‘夷’라고 한다.”(東方曰夷)라고 한다. 이들 오래된 자료에 의하면 ‘夷’가 동쪽의 이민족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듯하다. 그렇지만 ‘동쪽의 이민족이라는 정의는 대단히 애매모호하다. ‘동쪽 지역이란 어디를 기준으로 동쪽지역인가?’ ‘이민족이라는 것은 어떤 민족을 기준으로 이민족이라는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시대별, 지역별, 사람별로 ‘夷’를 다른

5) 王獻唐, 『山東古國考』, 齊魯書社, 1983년, 208쪽; 逢振鐸, 『東夷文化研究』, 齊魯書社, 2007년, 1~3쪽.

6) 『설문해자』 「大部」: 平也. 從大, 從弓. 東方之人也.

의미로 사용했다는 점에 있다.

‘夷’라는 단어는 그 역사가 오래되어 상대(商代) 갑골문자에서부터 보인다. 현대중국에서는 「이하동서설」이 주장하듯이 상(商)왕조를 동북지역의 이족(夷族)으로 여기거나 혹은 이족의 지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⁷⁾ 그 가장 주요한 이유는 동이족 신화와 상왕조의 건국신화가 모두 새 토テム 혹은 난생(卵生)신화를 공유한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상왕조와 이족이 구분되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상대의 갑골문에서 ‘夷’자는 보이지 않으며, ‘夷’의 의미로 ‘尸’가 쓰이고 있다.⁸⁾ 주로 ‘尸方’ 즉 ‘夷方’ 정벌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尸方(夷方)’이 특정지역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건 동쪽지역을 가리키는 일반명사건 상관없이 상왕조는 자신들과 ‘尸(夷)’를 구별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통설과는 달리 상왕조는 이족과 관련이 없을까?

우선 당시의 민족적, 국가적 개념이 지금과 완전히 달랐음에 틀림없고, 따라서 상왕조가 ‘尸方(夷方)’을 공격한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록들이 상왕조가 이족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갑골문에는 ‘尸方(夷方)’ 이외에도 이족 계통으로 여겨지는 방국(方國)의 명칭이 다수 보이기 때문에 ‘尸方(夷方)’이 고유명사라 하더라도 당시의 이족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갑골문이 전하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며 상고시대의 ‘夷’ 개념에 대해서는 갑골문보다 신화, 전설 및 인류학, 문화사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유효한 방법이 된다. 그 연구의 출발점은 역시 푸스넨의 「이하동서설」이다.

푸스넨은 夏와 夷로 대표되는 동서간의 대립세력이 서로 투쟁하고 멸망시키면서 고대 중국의 왕조가 형성되어 왔다고 파악한다. 특히 동이를 중국

7) 예를 들면 張富祿「海岱文化與中原文化」,『史學月刊』2000년 제2기, 129쪽, 逢振鐸『東夷文化研究』, 齊魯書社, 2007년, 505~511쪽 등의 연구가 있다.

8) 이미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갑골문에서 ‘尸’가 ‘夷’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은 확정되었다(李圃 주편,『古文字詁林』 제7책, 上海教育出版社, 2002년, 666~669쪽 ‘尸’ 해설 참조)

의 정치적, 문화적 중심세력으로 부각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기존의 연구에는 없던 새롭고 탁월한 견해였다.⁹⁾ 그는 춘추전국 이후의 사상가들이 하은 주(夏殷周) 중심의 왕조 체계를 구상하면서 夷를 배제하였기 때문에 동이가 중국 역사의 중심부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이하동서설』이 촉발한 동이 문제에 대하여 현대중국의 학자들은 동이를 단순한 이민족이 아니라 중국 민족을 형성한 주요 요소로 이해하고 있으며, 종전의 화하와 동이의 구분을 없앤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하왕조의 시조인 우(禹)를 동이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¹⁰⁾

탕자홍(唐嘉弘)은 푸스넨의 설을 받아들여 하대(夏代)로부터 이인(夷人)과 하인(夏人)의 동서 세력의 투쟁이 있었다고 하고, 결국은 하문화로 夷를 교화시켰다고 결론을 내린다.¹¹⁾ 또 그는 동이의 문화가 북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 대륙의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장푸샹(張富祥)의 기본 논조도 탕자홍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중원을 각축한 주요 세력을 북적집군(北狄集群)에 속하는 황제(黃帝)부락, 원래 서북유목민족이었던 서하(西夏)집군의 공공(共工) 즉 곤(鯀)부락, 동이집군에 속하는 태호(太昊), 소호(少昊)의 부락으로 나눈다.¹²⁾ 『사기』 「오제본기」의 기록에 의거하면 중국 최초의 다섯 천자는 황제(黃帝)와 그의 손자인 전옥(顓頊), 증손인 제곡(帝嚳), 제곡의 아들인 요(堯), 전옥의 자손인 순(舜)이며, 이들이 차례로 왕위에 올랐다고 한다. 그리고 뒤이어 하왕조를 개창한 우 역시 전옥의 자손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은 황제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계통만이 존재하게 된다. 장푸샹은 이 도식을 거부하고 다원론적 시각에서 재구성한다. 즉 『사기』에 서술된 오제시대는 북적, 서하, 동이의 세 집군이

9) 傅斯年, 정재서 역주, 『이하동서설』, 우리역사연구재단, 2011년.

10) 張發龍, 「鳳圖騰東夷人及其文化貢獻」, 『社會科學輯刊』, 2001년 02기, 115쪽.

11) 唐嘉弘, 「동이와 그 역사적 지위」, 정재서 역주, 『이하동서설』, 우리역사연구재단, 2011년 303쪽.

12) 張富祥, 「海岱文化與中原文化」, 『史學月刊』 2000년 제2기, 126쪽.

중원을 각축하던 시기고, 하왕조 이후 각 집군이 융합되어 최초로 화하족의 중원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의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중국 고대문명의 각 요소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 고대 각 지역 문화의 발전은 균등하지 않았으며, 본래 중화문화 혹은 중원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각 문화들이 융합하고 조정되어 형성되었다.
- 동이문화는 바로 고대에 황하 중심으로 뻗어나간 동부지역의 문화며, 바로 중원문화의 기층문화다.
- 하대 문화는 이미 동서가 결합된 화하문화로 화하는 아마도 이하가 변화한 발음일 것이다.
- 상부족이 동이에서 기원한 것은 틀림없지만, 이미 하문화를 계승하였으므로 화하문화라고 불려야 하며 단순히 동이문화라고 할 수는 없다.
- 상왕조는 여러 차례 대규모 동방 정벌을 하였는데, 이러한 무력충돌로 인해 산둥반도 토착문화와 중원문화의 융합을 가속화시켰다.
- 진한(秦漢) 이후 ‘동이’의 개념은 동북아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변화한다. 예를 들면, 『후한서』, 『삼국지』, 『진서』의 「동이전(東夷傳)」에서 기록하는 것은 모두 중국의 동북지역(몽고 동북부와 시베리아에까지 이름) 및 한반도, 일본열도의 민족 등이다.

이 같은 연구들은 황제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계통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거부하고 다원론적 시각에 입각한 연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원적 문화를 다시 화하문화로 종합시킨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사마천과 같은 일원적 문화론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회귀해 버린다.

왕커(王柯)는 중국이 초기국가시대부터 ‘다민족통일국가’였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적이 ‘화하’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중화왕조가

이적을 흡수하고 융화하여 하나의 중국을 이루었다는 것이다.¹³⁾ 왕커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까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개념으로 분리독립하려는 소수민족의 주장을 일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평전하오(逢振鏞)는 동이에 대하여 현재의 산둥 및 그 주변지역에 거주한 고대 토착민족으로 파악한다.¹⁴⁾ 따라서 그는 동이문화가 중원이나 기타 지역에서 근원하지 않았으며, 중원과 기타문화의 영향을 받아 생성된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이 동이문화는 주변지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으며, 중원의 하, 상, 주 문화가 모두 동이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동이문화는 중원문화에 대하여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중원문화를 창조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중원문화와 나눌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후대 중원지역의 하문화, 상문화, 선주(先周)문화는 모두 정도는 다르지만 동이문화와 관계가 있다. 특별한 것은 상문화로 사실상 동이문화의 지류다.¹⁵⁾

더구나 그는 과감하게 동이문화의 영향권을 한국과 일본 지역을 넘어 미대륙까지 확장한다.¹⁶⁾

그의 주장 중 주목하고 싶은 것은 또한 중원문화와 동이문화의 관계에서 주대 이래로 “존하베이(尊夏卑夷)”의 시각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다. 중원의 화하문화는 선진적이며 동이문화는 낙후되었다는 시각인데 이 시각은 서주시기에 생겨나기 시작하여 공자를 비롯한 춘추전국시기의 유가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공자가 하, 상, 주왕조의 통치를 높이고

13) 王柯, 김정희 역, 『민족과 국가 - 중국 다민족통일국가 사상의 계보』, 동북아역사재단, 2005년.

14) 逢振鏞, 「東夷土著民族論」, 『東岳論叢』, 1995년 2기, 104쪽.

15) 逢振鏞, 「略論東夷文化的基本特點」, 『管子學刊』, 1996년 제3기, 34쪽.

16) 逢振鏞, 「略論東夷文化的基本特點」, 『管子學刊』, 1996년 제3기, 35~36쪽.

그 밖의 지역과 민족에 대하여는 폄하하였다는 것이다.¹⁷⁾ 이는 왕셴탕王獻唐의 연구를 계승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유가문화가 동이문화의 정수를 계승하여 제로문화를 만들었다는 장편민(張建民)의 견해도 있다.¹⁸⁾ 그렇지만 장편민의 주장은 동이문화와 유가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지리적 이유만을 들고 있을 뿐 논리적인 증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상의 여러 설들은 사실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수행되고 있어서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특히 평전하오 등이 주장하듯이 과연 공자를 비롯한 유가사상이 이, 동이에 대하여 폄하하는 사상을 펼쳤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며, 이것이야말로 본 논문이 다루고자하는 주제다.

III. 춘추시기 공자의 ‘夷’ 관념

왕셴탕, 평전하오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가 문헌에는 ‘존하비아(尊夏卑夷)’적 표현이 보인다. 평전하오가 그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논어』와 『좌전』의 문장이다.¹⁹⁾ 이 예들이 ‘존하비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포된 의미에 대하여 보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어』 「팔일」의 예를 보자.

공자가 말하였다. “이적(夷狄)이 군주를 가지고 있어도 중국에 군주가 없는 것만 못하다.”²⁰⁾

17) 逢振鐸, 『東夷文化研究』, 齊魯書社, 2007년, 1~2쪽.

18) 張建民, 「東夷文明在中華文明形成過程中的地位」, 『連云港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8년 3월 제1기.

19) 逢振鐸, 『東夷文化研究』, 齊魯書社, 2007년, 2쪽.

이는 ‘이작’과 ‘중국(諸夏)’을 구분하고 ‘중국의 문화적 우위를 확인하는 문장이다. 이 문장만 가지고는 의미 파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형병(邢昺)의 소(疏)를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중국의 예의가 성대함과 이적에게는 예의가 없음을 말하였다. 이적을 들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용만(戎蠻)의 경우도 어떠한지 추측해 알 수 있다. 제하(諸夏)는 중국이다.²¹⁾

즉 「팔일」의 ‘이작’은 ‘동아의 ‘夷’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열등한 주변 이민족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 더구나 ‘이작’이라는 표현은 『논어』 「자로」에 다시 보이는데, 그 용법은 「팔일」의 예과 같다.

제자 번지(樊遲)가 인을 묻자 공자가 대답하였다. “거처할 적에 공손히 하며, 일을 집행할 적에 신중하게 하며, 사람을 대할 적에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록 이적의 땅에 가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²²⁾

위 문장의 주제는 공손(恭), 신중(敬), 성실(忠)의 덕목은 인을 행하는 중요한 덕목으로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이작’ 역시 공자가 생각하는 문화국이 아닌 주변 이민족의 나라를 가리킨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는 『논어』 「위령공」의 아래 문장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20) 『논어』 「八佾」: 子曰, “夷狄之有君, 不如諸夏之亡也.”

참고로 이 구절에 대하여 朱子(朱子)는 『논어집주』에서 程子(程子)의 “夷狄且有君長, 不如諸夏之僭亂, 反無上下之分也.”라는 말을 인용하여 이 구절이 오히려 중국이 무도함을 탄식한 말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21) 『논어주소』: 此章言中國禮義之盛, 而夷狄无也. 舉夷狄, 則戎蠻可知. 諸夏, 中國也.

22) 『논어』 「子路」: 樊遲問仁. 子曰, “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雖之夷狄, 不可棄也.”

말이 성실하고 믿음직하며 행동이 독실하고 경건하다면 비록 만맥(蠻貊)의 나라에서도 행해질 것이다.”²³⁾

이 문장의 ‘충산’ ‘독경’도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으로 언제 어디서나 행해야 할 것으로, 위의 「자로」의 문장과 취지가 같다. 그런데 「자로」의 ‘이적(夷狄)’이 여기서는 ‘만맥(蠻貊)’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자로」의 ‘이작(夷狄)’이 여기서는 ‘만맥(蠻貊)’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자로」의 ‘이작’이 ‘동아’ 지역의 ‘夷’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열등한 주변 이민족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문장 속 ‘이적’의 ‘夷’는 이민족 일반을 가리키지 ‘동아의’ ‘夷’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자는 ‘이작’을 폄하한 것이지 ‘동아’를 폄하한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이적을 폄하하는 이유를 살펴봐야 하는데, 『논어』 본문은 너무 간략하여 이것만 가지고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에 형병의 소에 의거하여 보면 「팔일」에서 중국을 높이고 이적을 폄하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예의의 유무다. 지역적, 민족적 측면에서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가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²⁴⁾ 이는 달리 말하면 예의를 갖춘다면 이적으로 폄하될 이유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고는 아래의 『논어』 「자한」의 문장을 통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공자가 구이(九夷)에 살려고 하였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물었다. “그 곳은 미개하니, 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하였다. “군자가 거주한다면 무슨 미개함이 있겠는가?”²⁵⁾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형병의 설명을 보면 아래와 같다.

23) 『논어』 「衛靈公」: 子曰,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 行矣.”

24) 『논어』 「子路」의 문장에 대해 邢昺은 “此恭敬及忠, 雖之適夷狄無禮義之處, 亦不可棄而不行也.”라고 하여 이적의 땅에는 역시 예의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25) 『논어』 「子罕」: 子欲居九夷 或曰, “陋如之何?” 子曰, “君子居之, 何陋之有?”

‘그 곳은 미개하니, 사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의 뜻은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동이지역은 멀리 떨어져 미개하고 예의가 없으니 어떻게 거처하겠는가?’라고 물은 것이다. ‘군자가 거주한다면 무슨 미개함이 있겠는가?’라는 말의 뜻은 공자가 어떤 사람에게 대답한 것으로 군자가 거하게 되면 교화하여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게 만든다. 그 때문에 ‘무슨 미개함이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²⁶⁾

즉 예의가 없는 이적의 땅이라도 군자가 거하면 예의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그곳은 더 이상 이적의 땅으로 볼 수 없다. 공자는 이민족의 나라에 예의가 없음을 문제 삼은 것이지 무턱대고 폄하하고 있지 않다. 앞에서 살펴본 「팔일」이나 「자로」의 문장은 공자가 이적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의를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적, 혹은 구이를 비유적으로 언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자한」의 ‘九夷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지만,²⁷⁾ 『목자』 「非攻 中」·「節葬」, 『管子』 「小匡」, 『전국책』 「秦策 三」·「魏策 一」, 『한비자』 「說林 上」 등의 문헌으로 보아,²⁸⁾ ‘九夷’는 이민족 일반이

26) 『論語注疏』 「子罕」 邢昺疏: “或曰, 陋如之何”者, 或人謂孔子言, 東夷僻陋無禮, 如何可居? “子曰, 君子居之, 何陋之有?”者, 孔子荅或人言, 君子所居則化, 使有禮義, 故云何陋之有.

27) 구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설에 대해서는 함현찬 「유교경전의 동이 인식에 관한 연구-13경 및 그 주석서를 중심으로-」(『한국철학논집』 제30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0년)를 참조.

28) 『목자』 「非攻 中」: 古者吳闔閭教七年, 奉甲執兵, 奔三百里而舍焉. … 至夫差之身, 北而攻齊, 舍於汶上, 戰於艾陵, 大敗齊人, 而葆之大山. 東而攻越, 濟三江五湖, 而葆之會稽. 九夷之國莫不賓服. 於是退不能賞孤, 施舍群萌, 自恃其力, 伐其功, 譽其智, 怠於教, 遂築姑蘇之臺, 七年不成. 及若此, 則吳有離罷之心.

『목자』 「節葬」: 昔者堯北教乎八狄, 道死, 葬蛭山之陰. … 舜西教乎七戎, 道死, 葬南己之山. … 禹東教乎九夷, 道死, 葬會稽之山.

『管子』 「小匡」: 北伐山戎, 制冷支, 斬孤竹, 而九夷始聽, 海濱諸侯, 莫不來服. 西征, 攘白狄之地, 遂至于西河. 方舟投柁乘桴濟河, 至于石沈.

『전국책』 「秦策 三」: 齊有東國之地方千里, 楚苞九夷又方千里, 南有符離之塞, 北有甘魚之口.

『전국책』 「魏策 一」: 張儀欲敗之, 謂魏王曰, “齊畏三國之合也, 必反燕地以下楚. … 齊遂伐

아닌 ‘동이’의 ‘夷’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공자가 九夷에 거주하고자 한 이유인데 그것은 중국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서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같은 맥락으로 『논어』 「公冶長」에는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나는 뗏목을 타고 바다에 떠다니고자 한다.”라는 공자의 말이 있다.²⁹⁾ 공자가 자신의 이상이 실현되지 않아 중국이 아닌 다른 곳을 선택할 때, 언제나 동쪽 지역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동이 지역에 대한 동경을 서술한 것이 아닐까? 참고로 공자는 동이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은나라의 후예다.³⁰⁾

이상으로 보아 공자는 중국과 이민족을 구분하고 있었으며, 이민족이 중국에 비해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그 열등함은 예의의 유무에 달려 있으며 이민족이 예의를 갖춘다면 열등함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더구나 동이에 관해서는 주변 이민족과는 달리 거주까지도 염두에 둘 만큼 교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IV. 전국시기 맹자와 순자의 ‘夷’ 관념

맹자는 공자의 동이사상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켰다.

나는 중국의 문화를 가지고 야만국(夷)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들어보았으나, 야만국(夷)에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³¹⁾

趙, 取乘丘, 收侵地, 虛頓丘危, 楚破南陽九夷, 內沛, 許鄴陵危. … 魏王弗聽也.
『한비자』 「說林 上」: 周公旦已勝殷, 將攻商蓋, 辛公甲曰, 大難攻, 小易服, 不如服衆小以劫大, 乃攻九夷, 而商蓋服矣.

29) 『논어』 「公冶長」: 子曰, “道不行, 乘桴浮于海.”

30) 『禮記』 「檀弓上」: 丘也殷人.

옛날에 우가 홍수를 다스렸으므로 천하가 평온해졌고, 주공이 이적을 정복하고 맹수를 몰아냈으므로 백성들이 편안해졌으며, 공자가 『춘추』를 완성하자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이 자신의 잘못을 두려워하게 되었다.³²⁾

맹자는 문화적 우위가 확실히 중국, 화화에 있다고 여겼다. 위의 「등문공 상」의 ‘夷는 앞의 『논어』와 마찬가지로 동이의 夷가 아니라, 중국 주변의 이민족 국가를 가리킨다고 여겨진다. 반면 「등문공 하」의 ‘이작’은 동이를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주공은 실제로 동방정벌전쟁을 수행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문장만 가지고 맹자가 동이를 멸시하고 있었다고는 확정지을 수는 없다.

맹자가 말하였다. “순임금은 저풍에서 태어나 부하로 옮겼다가 명조에서 죽었으니 동이사람이다. 문왕은 기주에서 태어나 필영에서 죽었으니 서아(西夷) 사람이다. 지리적으로는 천여 리 떨어져 있으며 세대로는 천여 년이지만 뜻을 얻어 중국에서 정치를 행한 마음은 부절이 합한 것같이 동일했다. 앞 성인과 뒤 성인의 그 법도가 한 가지였다.”³³⁾

순과 문왕은 모두 공자, 맹자가 추앙해 마지않는 성인이다.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완벽한 인간인데 만약 ‘夷’에 멸시의 의미가 있다면 완벽한 인격을 지닌 성인에게 ‘동이’, ‘서아’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 참고로 조기(趙岐)는 ‘동아’의 ‘夷’를 ‘동방이복(東方夷服)의 땅’으로 보아

31) 『맹자』 「滕文公 上」: 吾聞用夏變夷者, 未聞變於夷者也.

32) 『맹자』 「滕文公 下」: 昔者禹抑洪水而天下平, 周公兼夷狄驅猛獸而百姓寧, 孔子成春秋而亂臣賊子懼.

33) 『맹자』 「離婁 下」: 孟子曰, “舜生於諸馮, 遷於負夏, 卒於鳴條, 東夷之人也. 文王生於岐周, 卒於畢郢, 西夷之人也. 地之相去也, 千有餘里, 世之相後也, 千有餘歲. 得志行乎中國, 若合符節, 先聖後聖, 其揆一也.”

행정구역으로 취급하나,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 까닭은 조기가 ‘서아’를 설명할 때 ‘견이(畎夷)’에 가깝기 때문에 ‘서아’라고 칭하였다고 하여 조기주 내부에서도 ‘夷’의 의미를 통일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⁴⁾ 여기서 ‘夷’는 ‘이족’ 혹은 ‘주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문장은 순과 문왕은 이족 혹은 주변부 출신이었지만 인격을 연마하여 결국 성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지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맹자도 중화와 夷를 구분하여 夷를 열등하다고 폄하하고만 있지 않았다. 비록 이적 지역이 문화적으로 열등하다 하더라도 예의와 문화의 습득 여하에 따라 화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은 모든 인간의 본성이 동일하게 선하다는 것이다. 즉 본성적 측면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된다. 성선설에 의하면 그것이 이적의 야만인이라도 본성은 선하며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인이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가 출신만 따져서 인간을 멸시하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유가는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으며, 어진 정치를 잘 시행하면 먼 변방의 만이(蠻夷)도 앞 다투어 와서 복종한다고 한다.³⁵⁾ 이것이 바로 왕도정치다. 맹자의 성선설과 왕도정치사상에는 그것이 夷가 되었던 蠻이 되었던 이민족을 배척하는 관념이 희박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아래의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나라의 군주가 인을 좋아하면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인을 좋아하는 유덕자가 남쪽을 향하여 정벌전쟁을 벌임에 북적이 원망하고, 동쪽을 향하여 정벌전쟁을 벌임에 서이가 원망하여 말하기를 ‘왜 우리를 먼저 정벌하지

34) 『孟子注疏』「離婁 下」趙岐의 注: 諸馮·負夏·鳴條, 皆地名也。負海也, 在東方夷服之地, 故曰, 東夷之人也。… 岐周·畢郢, 地名也。岐山下周之舊邑, 近畎夷。畎夷在西, 故曰, 西夷之人也。

35) 『시경』「小雅·北山」: 溥天之下, 莫匪王土。/ 『상서』「堯典」: 咨十有二牧, 曰, “食哉惟時, 柔遠能邇, 惇德允元, 而難任人, 蠻夷率服。”

않고 뒤로 미루는가?’라고 한다.³⁶⁾

이와 유사한 예문이 「양혜왕 하」와 「등문공 하」에도 보인다.³⁷⁾ 중국에서 천자의 덕은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두루 미치는 것이며 어진 정치를 잘 시행하면 아무리 먼 변방의 이민족이라 하더라도 통역을 이끌고 와서 복종한다. 여기에는 배타적인 화이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진시기 유가 중 순자는 예와 구분(分)을 중시한 사상가다. 순자의 예는 구분이며, 구분에는 필연적으로 차등과 차별이 있다.

예란 귀천에 차등이 있고, 장유에 차별이 있고, 부귀나 존귀에 제각각 어울리는 것이 있는 것이다.³⁸⁾

신분, 계층, 연령에 의한 구분·차등이 바로 예다. 순자는 이처럼 구분·차등을 통해 인간의 욕망에 한계점을 주어야만 인간의 집단(群)은 존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당연히 하(夏)와 夷도 구분한다.

그러므로 중국은 지역도 같이 하고 제도도 같이 하지만, 만이융적의 이민족 국가들은 지역은 같이 하더라도 제도는 달리 한다. 왕도에 가장 가까운 기내는 전복(甸服)이라 하고, 기내에서 인접한 기외는 후복(侯服)이라 하고, 후복을 둘러싸고 있는 곳은 빈복(賓服)이라 하고, 만이(蠻夷)의 땅은 요복(要服)이라 하고, 융적(戎狄)의 땅은 황복(荒服)이라 한다.³⁹⁾

36) 『맹자』 「盡心 下」: 國君好仁, 天下無敵焉 南面而征北狄夷怨, 東面而征西夷怨, 曰, “奚爲後我”

37) 『맹자』 「양혜왕 하」: 書曰, ‘湯一征, 自葛始.’ 天下信之, 東面而征, 西夷怨, 南面而征, 北狄怨, 曰, ‘奚爲後我?’

『맹자』 「滕文公 下」: ‘湯始征, 自葛載.’ 十一征而無敵於天下. 東面而征, 西夷怨, 南面而征, 北狄怨, 曰, ‘奚爲後我?’ 民之望之, 若大旱之望雨也. 歸市者弗止, 芸者不變, 誅其君, 弔其民, 如時雨降. 民大悅.

38) 『순자』 「富國」: 禮者, 貴賤有等, 長幼有差, 貧富輕重皆有稱者也.

전복 ~ 황복은 수도로부터 거리에 따라 정해진 행정구역이다. 위문장에 이어서 전복에서는 날마다, 후복에서는 달마다, 빈복에서는 계절마다 제사에 참가하는 제도가 서술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화하의 나라들이다. 요복 이하는 소위 멸시당하는 이민족 국가들의 지역인데 요복의 만이는 매년 공물을 바치고, 황복의 융적은 왕이 바뀔 때마다 조회를 온다는 제도가 서술되어 있다. 이 제도는 형세와 지리적 거리에 따라 조공과 조회에 차등이 설정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왕자의 제도, 즉 예제다. 만이, 융적은 예교가 미치는 지역 중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성왕의 교화, 가르침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성왕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만이, 융적은 문화적으로 열등해진다. 그렇지만 혹시 만이, 융적이 성왕의 교화를 직접 받는다면 『맹자』에 보이는 순과 문왕처럼 중앙을 이끄는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干, 越, 夷, 貉의 이민족의 자식들도 태어났을 때는 중국의 아기들하고 똑같은 소리를 내지만 성장하면서 지역 풍속에 의해 서로 다른 존재로 변한다.⁴⁰⁾ 즉 중국과 이적의 차이란 교육, 교화의 기회가 많고 적음에 따른 것으로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⁴¹⁾

이상으로 보면 공자도, 맹자도, 순자도 철저하게 夷와 胡를 구분하여 이를 멸시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적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화하족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이후 중국에서 뿌리 깊은 중화의식과 이민족 배타 사상의 원류가 공자, 맹자, 순자와 같은 원시 유가 사상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중화의식과 이민족 배타 의식은 언제 무슨 이유로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하에서 이 점에 대해 논하겠다.

39) 『순자』 「正論」: 故諸夏之國, 同服同儀, 蠻夷戎狄之國, 同服不同制. 封內甸服, 封外侯服, 侯衛賓服, 蠻夷要服, 戎狄荒服.

40) 『순자』 「勸學」: 干·越·夷·貉之子, 生而同聲, 長而異俗, 教使之然也.

41) 이점에 대해서는 오구라 요시히코(小倉芳彦, 『中國古代政治思想研究』, 青木書店, 1970년, 328~331쪽)가 자세하게 논하고 있는 것을 참조

V. 『공양전』을 통해 본 한대 유가의 ‘夷’ 관념

『공양전』의 ‘夷’ 논리 및 화이론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히하라 도시쿠나(日原利國)는 수용의 논리, 치열한 양이(攘夷)사상, 권계주의(勸戒主義)의 세 가지를 든다.⁴²⁾

첫째, 수용의 논리란 이적도 문화적으로 향상되면 화하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적도 예의를 습득하고 문화적으로 향상되면 화하로 편입된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살펴본 맹자의 왕도정치와 연결되는 유가적 사유다. 훌륭한 덕을 소유한 왕자가 인에 의한 덕정을 펼치면 사방의 인민들이 모두 귀의해 온다. 이적도 예외가 아니다. 덕정에 교화되어 예의와 문화를 받아들이고 일단 화하사회로 귀의해 오면 설령 이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 그 실례는 『춘추』에 다수 보이며 『공양전』은 수용의 논리로 이를 설명한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초나라다. 초나라는 남방의 대국이지만, 『춘추』는 ‘초(楚)’라는 국명 대신 ‘형(荊)’이라는 지명으로 대신 적고 있었는데 이는 오랑캐로 비하하였기 때문이었다.⁴³⁾ 『춘추』 필법에 의하면 국명 대신 그 지역의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그 나라를 비하한다. 「장공 10년」에 초나라는 채나라 제후를 사로잡았는데 사로잡았다(獲)고 쓰지 않았다. 그 까닭을 『공양전』은 “이적의 나라가 중국의 제후를 사로잡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⁴⁴⁾

그런데 「장공 23년」(기원전 671년)에 보이는 『춘추』의 기록은 “형나라 사람이 노나라에 와서 빙문하였다.(荊人來聘)”라고 하여 ‘형인(荊人)’이라고

42) 日原利國, 『漢代思想の研究』, 研文出版社, 1986년, 160쪽. 이하에서는 日原利國의 논리를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겠다.

43) 『춘추』 「莊公 10년」: 秋, 九月, 荊敗蔡師于莘. 『춘추』 「장공 14년」: 秋, 七月, 荊入蔡. 『춘추』 「장공 16년」: 秋, 荊伐鄭.

44) 『공양전』 「장공 10년」: 曷爲不言其獲? 不與夷狄之獲中國也.

적혀 있다. 여기에서 대해서 『공양전』은 “『춘추』에서는 어째서 荊에 ‘人’을 붙였는가? 그 까닭은 荊이 처음으로 노나라를 빙문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해설한다.⁴⁵⁾ 즉 초나라는 남방의 이민족이지만 예를 갖추어 중화의 문화 선진국인 노나라를 빙문함으로써 중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의미다.

그 이후 초나라는 점점 발전하여 「회공 원년」에는 ‘楚人’이라고 불렸다. 이는 荊이라는 지명이 아니라 楚라는 국명을 사용해준 것으로 이제 정식으로 국가로서 인정을 받은 셈이다. 그리고 「문공 9년」(기원전 618년)에 초나라 사신이 노나라에 빙문을 왔는데, 『춘추』는 “초나라 자작이 사신 椒(椒)를 시켜 노나라를 빙문하도록 하였다.”라고 적고 있다.⁴⁶⁾ ‘楚人’에서 ‘楚子’로 변화하고 있는데, ‘子’는 ‘자작’이라는 관작이다. 관작을 붙여 표현한 이유는 초나라가 화하의 나라들처럼 대부의 자리를 두었기 때문이다. 즉 초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예제를 제대로 갖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야만국이 아니라 정식으로 화하의 나라로 편입된 것이다.

둘째, 치열한 양이사상은 화하와 이적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화하를 높이고 이적을 멸시하는 사상이다. 앞의 수용의 논리와 모순되는 듯하지만 『공양전』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다. 양이사상의 이면에는 이적에 대한 문화적 우월감이 자리하고 있다. 수용의 논리 역시 화하의 문화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만약 이적이 그 우월성을 인정하고 복종하여 따른다면 받아들인다는 것이 수용의 논리고,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이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한 중화주의가 양이사상이다. 『춘추』 「회공 4년」의 “초나라 굴완이 와서 사 땅에서 맹약을 맺고 소릉 땅에서 맹약을 맺었다”는 기사에 대해,⁴⁷⁾ 『공양전』은 제환공의 초나라 정벌을 ‘왕자의 일’이라고

45) 『공양전』 「장공 23년」: 荊何以稱人? 始能聘也.

46) 『춘추』 「文公 9년」: 楚子使椒來聘.

47) 『춘추』 「僖公 4년」: 楚屈完來盟于師, 盟于召陵.

칭송한다. 사실 『공양전』은 천자의 명령 없이 마음대로 토벌전쟁을 벌이는 것을 비난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칭송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제환공이 이적으로부터 화하의 문화와 사회를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아직 침략하지도 않은 용족을 추격하여 제서로 쫓아낸 노나라 장공에 대하여⁴⁸⁾ 『공양전』은 역시 의로운 전쟁으로 여겨 칭찬하고 있다. 이러한 양이사상은 무력을 배제하고 인의를 강조하는 유가사상과는 배치된다. 여기에 대하여 하하라 도시쿠니는 객관적 군사력 열세가 화이 관념을 자극하여 이적에 대한 증오와 멸시를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과격한 양이 사상이 표출되었다고 본다.⁴⁹⁾

셋째, 권계주의는 예의와 문화가 향상되어 화하로 이행한 자라고 하더라도 인류에 어긋나는 행위를 벌이면 다시 이적으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령 화하의 국가라 하더라도 행위에 따라서는 이적으로 강등될 수 있다. 즉 중국 역시 새롭게 이적이 될 수 있다.⁵⁰⁾ 예를 들면 “쑤나라가 선우를 정벌했다.(晉伐鮮虞)”라는 『춘추』 「소공 12년」 기사에 진나라 후작(晉侯)라는 관작을 적어야 함에도 ‘쑤’이라고만 기록하여 이적을 부를 때의 호칭을 사용한다.⁵¹⁾ 『춘추』와 『공양전』 속에는 화하가 이적으로 폄하되어 강등된 사례가 적지 않게 보이며, 권계는 오히려 화하를 주 대상으로 삼았다고 생각된다.⁵²⁾

『춘추』 「소공 23년」의 “吳敗頓·胡·沈·蔡·陳·許之師于雞父”라는 기사에 대해 『공양전』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중국의 국가를 주체로 삼지 않았는가? 중국의 국가도 또한 새롭게 이적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⁵³⁾ 즉 전쟁의 주체가 오나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적 국가였던 오나라를

48) 『춘추』 「장공 18년」 : 公追戎于濟西.

49) 日原利國, 『漢代思想の研究』, 研文出版社, 1986년, 164~168쪽.

50) 『공양전』 「昭公 23년」 : 中國亦新夷狄也.

51) 『공양전』 「소공 12년」 徐彥의 疏 : 諸夏之稱, 連國稱爵, 今單言晉, 作夷狄之號.

52) 日原利國, 『漢代思想の研究』, 研文出版社, 1986년, 162쪽.

중국으로 인정하고 원래 중국에 속해있던 蔡·陳·許 등의 나라를 이적으로 취급한 필법이다.

중화국이라도 얼마든지 이적으로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의 사상이 바로 『공양전』의 권계주의다. 엄격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권계주의가 화이론에 포함된 까닭은 패륜을 저질렀을 때 이적으로 강등되는 모멸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여 패륜을 바로잡고, 천하의 국가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였다.

이상으로 보면 『공양전』은 중화문화에 동조하는가에 따라 중국과 이적을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과 이적의 문화적 차이가 무엇이나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양전』은 물론 『곡량전』, 『좌씨전』의 경우에도 그 저자들이 주나라 공동체 내의 국가들과 외국을 구분하는 명확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공양전』과 『곡량전』의 주석에 반영된 문화적, 윤리적 입장은 실제 사건들이 발생하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서술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⁵⁴⁾ 따라서 『공양전』, 『곡량전』, 『좌씨전』의 작자가 춘추시기의 각 국가 간의 문화적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일은 사실 정치적인 이유에 서였지 문화적인 이유에서였다고 볼 수 없다. 『공양전』은 표면적으로는 이적에게 문화적인 예의를 요구하지만, 사실은 예의의 탈을 쓴 정치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주나라의 봉건주의 정책은 이민족이 종속국이든 동맹국이든 자신의 정치적 영역 안에 들어올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나라의 정치 질서를 위협하거나 손상시켰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이적으로 강등되었다.

53) 『공양전』 「소공 23년」: 然則曷爲不使中國主之? 中國亦新夷狄也.

54) 니콜라 디코스모, 이재정 옮김, 『오랑캐의 탄생』, 황금가지, 2005년, 137쪽.

VI. 결론

전한말기 소제(昭帝) 때(기원전 81년) 황제의 조칙에 의해 소금과 철의 전매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가 열렸다. 소위 염철회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회의는 정부 당국을 대표하는 승상·어사와 민간의 지식인으로 대변되는 현량·문학의 토론의 장이었다. 이 회의에서 이적론은 대대적으로 논의된다. 승상·어사는 중국을 침입해오는 이민족을 향하여 전쟁을 불사하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였다. 반면에 현량·문학은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현량·문학은 덕치주의의 입장에서 흉노를 중심으로 하는 이적들과 화친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승상·어사는 진나라와 같이 힘의 통치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자에서 『공양전』까지 면면히 흐르던 유가의 전통이 보이지 않는다. 즉 중화나 이적이냐의 문제를 예의, 윤리, 문화의 유무로 파악하던 사람은 사라지고, 오로지 화친(현량·문학)이나 정벌(승상·어사)라는 정치적 문제로 돌변하였다. 특히 화이론을 통해 중화국가의 윤리도덕을 건지하려했던 『공양전』의 권계주의 역시 사라졌다. 히하라 도시쿠니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한대가 되자 정치에서는 윤리적 요소가 점점 희박해져갔다. 화이 관념이 권계주의를 상실한 채 오로지 양이나 수용이냐의 정치론으로 빠져버린 것도 피할 수 없는 추세였을지도 모른다.⁵⁵⁾

『염철론』에 보이는 화이론은 유가 사상에서 계속 논의되던 화이론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평전하오가 말한 ‘중화를 높이고 이적을 멸시한다(尊

55) 日原利國, 『漢代思想の研究』, 研文出版社, 1986년, 179~280쪽

夏卑夷’는 시각의 유래는 공자, 맹자, 순자 등의 고대 유가 사상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염철회의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상으로 중국 고대의 ‘夷’에 대한 논의를 유가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자는 이민족이 예의를 갖춘다면 그들의 열등함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며 동이를 교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맹자는 이적의 야만인이라도 본성은 선하며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여 순과 문왕을 그 대표적인 인물로 존중한다. 순자는 중국과 이적의 차이란 교육, 교화의 기회가 많고 적음에 따른 것으로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고대의 유가들은 중화와 이적을 정치적으로 구별하여 이적을 배척하지 않았다.

전한시기의 공양전은 수용의 논리와 권계주의를 통해 이적도 중국이 될 수 있음을 설파하였다. 그렇지만 이때부터 이적을 바라볼 때 정치적인 시각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에는 한과 흉노와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후한시기가 되면 『염철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더 이상 교화의 대상이나 문화 상대주의적 시각으로 보지 않고 완전히 분리하여 중국에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삼국시대로 접어들면 이러한 사유는 더 강해지는데 삼국 혹은 남북으로 갈라져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던 시절, 중국 밖 이적에 대해 생각하는 힘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⁵⁶⁾

본 논문은 유가사상 속에 한정하여 ‘아’, ‘동아’, ‘화이론’의 개념을 추적하였기 때문에 은대 이전의 ‘아’, ‘동아’ 개념이 서주에서 춘추전국을 거쳐 한, 위진시대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천되어 가는가에 대해서는 논증이 미흡하였다. 이 문제는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56) 홍승현, 『중국과 주변』, 해안, 2009년, 118~123쪽.

<참고문헌>

- 逢振鐸, 「東夷土着民族論」, 『東岳論叢』, 1995년 2기.
- 逢振鐸, 「略論東夷文化的基本特點」, 『管子學刊』, 1996년 제3기.
- 張富祥, 「海岱文化與中原文化」, 『史學月刊』 2000년 제2기.
- 張發穎, 「鳳圖騰東夷人及其文化貢獻」, 『社會科學輯刊』, 2001년 02기.
- 逢振鐸, 『東夷文化研究』, 齊魯書社, 2007.
- 張建民, 「東夷文明在中華文明形成過程中的地位」, 『連云港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8년 3월 제1기.
- 함현찬, 「유교경전의 동이 인식에 관한 연구 - 13경 및 그 주석서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제30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0.
- 傅斯年, 정재서 역주, 『이하동서설』, 우리역사연구재단, 2011.
- 唐嘉弘, 「동이와 그 역사적 지위」, 정재서 역주, 『이하동서설』, 우리역사연구재단, 2011.
- 小倉芳彦, 『中國古代政治思想研究』, 青木書店, 1970.
- 王獻唐, 『山東古國考』, 齊魯書社, 1983.
- 日原利國, 『漢代思想の研究』, 研文出版社, 1986.
- 니콜라 디코스모, 이재정 옮김, 『오랑캐의 탄생』, 황금가지, 2005.
- 王柯, 김정희 역, 『민족과 국가 - 중국 다민족통일국가 사상의 계보』, 동북아역사재단, 2005.
- 홍승현, 『중국과 주변』, 해안, 2009.

□ 이 논문은 2016년 3월 25일 투고되고
2016년 4월 1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4월 1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

<ABSTRACT>

A study of 'Yi(夷)' in Ancient China from the history of Confucianism

Won, Yong-Joon*

It is essential that they are achiev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history of ideas since there is an intimate relation between ideas of culture and ethics just like in Xia(夏)/Zhong-Hwa(中華) and Yi(夷)/Eastern Yi(東夷). However, there have been few case studies tracing the history of Confucianism. Being aware of this problem, this thesis is going to survey the various views of Yi and Sinocentrism or Hwa Yi Lun(華夷論) by mainly applying a Confucian ideology. Those who supported this perspective were Wang Xiantang(王獻唐) and Feng Zhengao(逢振鏑) and they criticized the existing Sinocentrism or Hwa Yi Lun - of respecting Zhong-Hwa while disdaining the Barbarian tribes(尊夏卑夷) - by blaming the Confucian ideology from Confucius for the spawn of this wrong idea. But, this view, if you look through history of the Confucianism, was faulty. After all, could it be that the origin of Zhang Fuxiang's(逢振鏑) perspective of 'respecting Zhong-Hwa and disdaining the Barbarous tribes(尊夏卑夷)' might have originated from the salt-steel meeting(鹽鐵會議) in the Later Han Dynasty.

【Keywords】 Yi(夷), Eastern Yi/Dongyi(東夷), Hwa Yi Lun(華夷論), Zhong-Hwa(中華), Confucianism, Gongyang Zhuang, the salt-steel meeting

* Sungkyunkwan University.